그림책

육탄영웅

금성청년종합출판사 주체90(2001)

주체41 (1952)년 9월 22일 아침, 저 멀리 서쪽으로 1211고지의 웅건한 자태가 바라보이는 854.1 고지우에서는 포화에 찢기고 총탄구멍이 숭숭 난 람홍색공화국기발이 가을바람에 나붓기고 있었다.

미제침략군놈들이 《동부전선 요충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떠벌이던 고지를 단숨에 타고 앉은 인민군용사들의 만세소리가 단풍 짙은 조국의 고지들마다에 메아리쳐 가고 있었다.

방금 처절한 격전이 있은 고지에는 포연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승리한 전사들을 축복하는듯 아침해살이 령롱히 비치는 무너진 참호에는 중대당원 아홉명이 모여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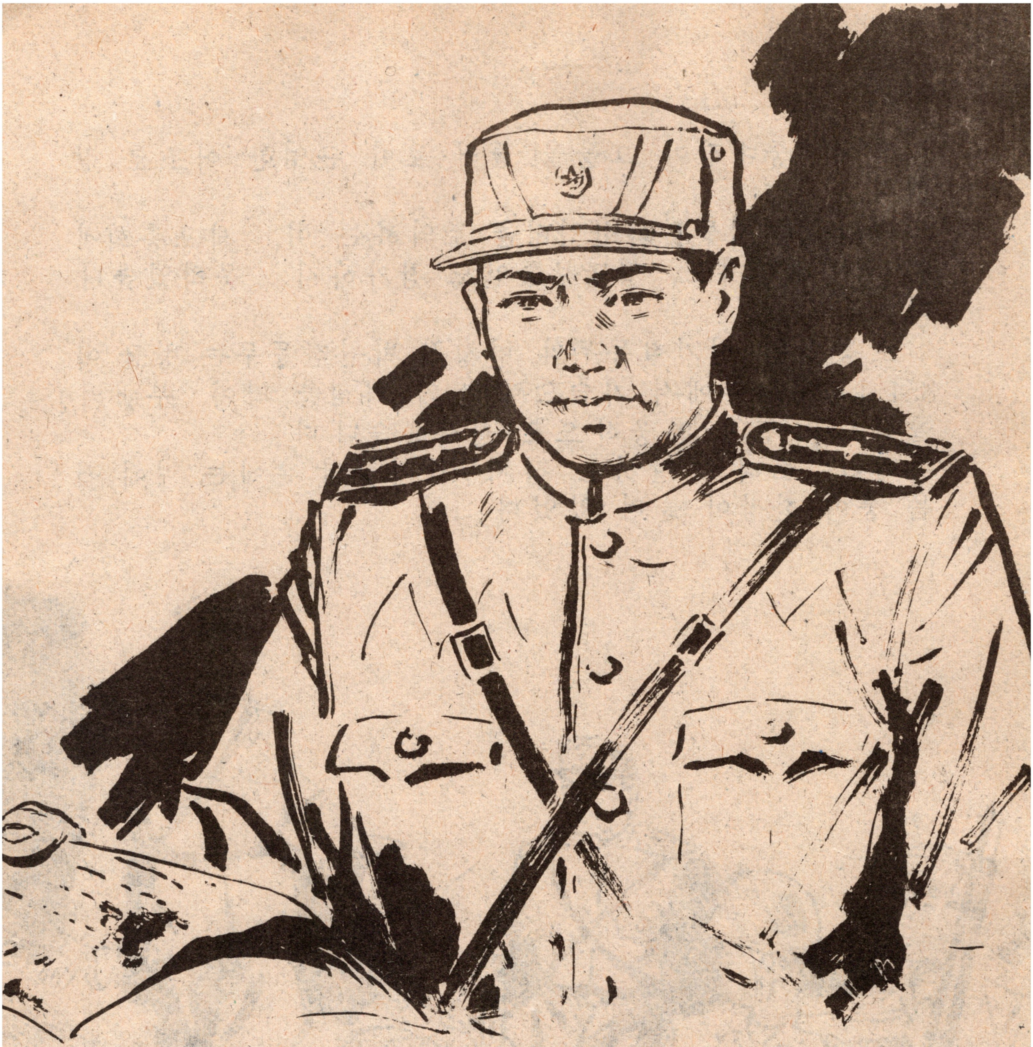
포화에 찢긴 군복…머리에 팔에 감겨진 붕대들…그들의 얼굴은 비분에 젖어 있었고 장내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정치부중대장이 그들을 둘러 보며 근엄한 어조로 말했다.

《당원동지들! 화선입당을 토의하는 이 세포총회에는 입당대상자도, 입당보증인도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로동당원 신기철동무와 민청원 박원진동무는 방금 이 854.1고지전투에서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고 영웅적으로 전사했습니다.》

갈린 소리로 말하는 정치부중대장의 손에는 피에 젖은 종이 한장이 들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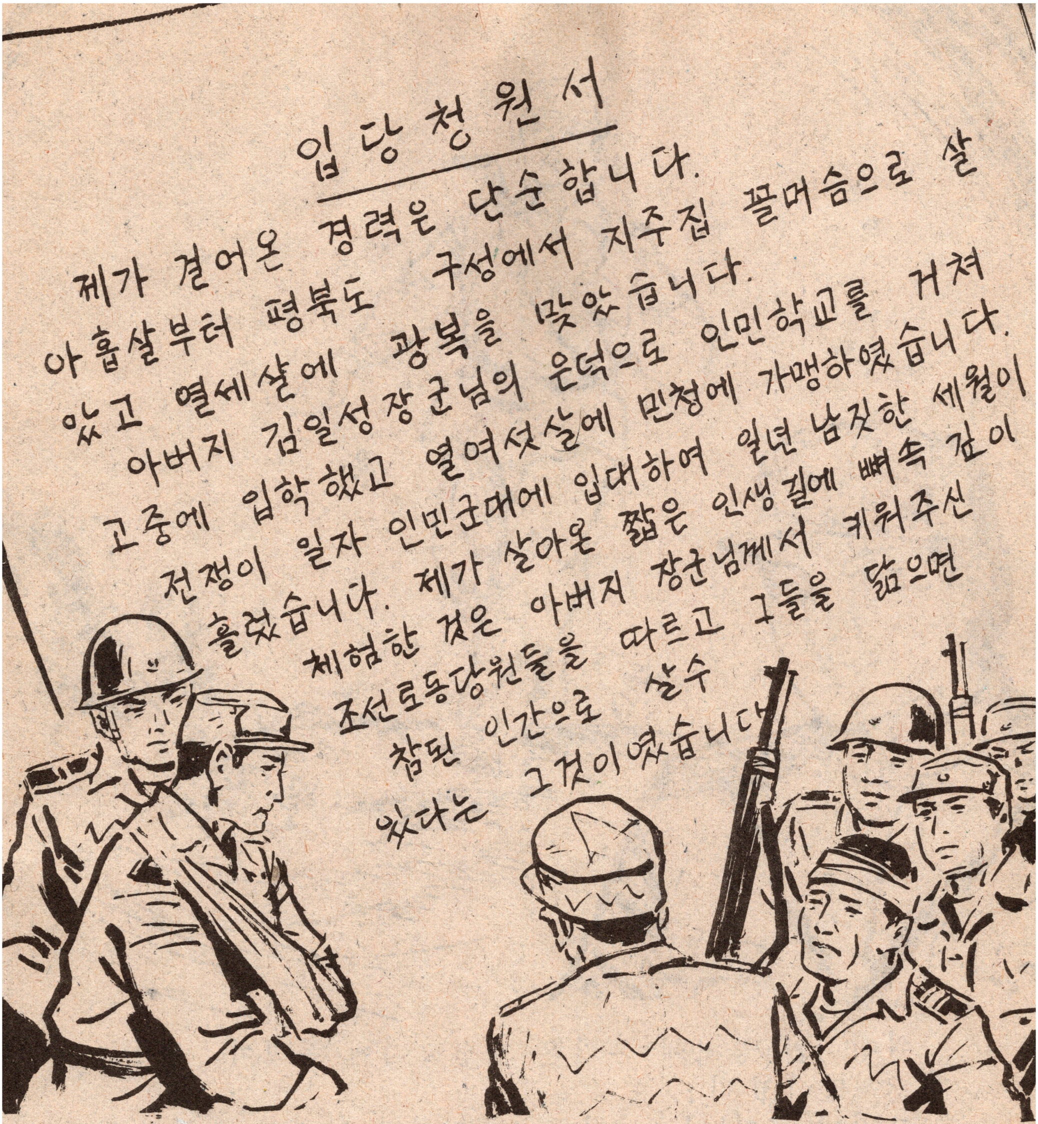


《민청원 박원진동무가 채 쓰지 못한 입당청원서입니다.》

《…》

언제부터인가 한 민청원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 있던 피 묻은 종이는 당원들의 손에서 손으로 조심히 넘어 갔다.

그들의 눈에는 연필로 또박또박 쓴 글발이 새겨 졌다.



박원진이 채 쓰지 못한 입당청원서는 중대 당원들의 심장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들을 보는 정치부중대장의 물기어린 눈앞에는 원진이가 중대에 배치되여 오던 날이며 중대생활의 나날에 있었던 잊을수 없는 생활의 토막들이 안겨 왔다.

원진이가 중대에 온것은 전선고지에 봄빛이 무르녹던 3월말이였다.

고지에 타다 남은 나무그루터기밑에 파란 싹이 뾰좀뾰좀 돋아 나는 언덕길로 귀염성스럽고 보조개가 패인 상등병이 중대진지로 날듯이 달려 오고 있었다.

그가 박원진이였다.

이따금 적진에서 눈먼 포탄이 날아 와 터져도 아랑곳없이 사기충천하여 달려 오고 있었다.

《련대 나팔수가 온다!》

누구인가 소리치자 전호를 수리하던 군인들이 저저마다 반색하며 소리쳤다.

《원진이!》

《나팔수! 돌격구령이 내렸나?》

《련대의 새 소식이 있으면 어서 말하라구!》

《난 배치돼 왔어요! 이 중대에 왔단 말이예요.》

《그게 정말인가?》

《그럼요!》.

《잘 왔어! 절대 환영이야!》

《고맙습니다!》

《원진이! 련대 나팔수가 중대 전사로 오면 떨어진게 아닌가? 군에서 리에 내려온것처럼 말이야!》

《하하하…》

원진이가 왔다는 소리에 모두들 반가와했다.

참호를 수리하던 상등병 한웅범이 달려와 그를 덥석 그러안았다.

《원진이! 신입병사중대에서도 함께 있었는데 또 함께 있게 됐단 말인가?》

《그래! 함께 싸워 보자구 생떼질해서 왔어.… 한데… 난 동무를 보니 미안한 생각부터 드누만.》

《내 토론원고 〈도적질〉한거?》

《그래…사실은…》

《난 벌써 다 잊었어. 하하하… 동무도 3소대 1분대지? 나도 그 분대야!》

《그래?》

《신기철분대장동지밑에서 또 함께 있게 됐구만!… 참 잘됐어!》

《분대장동진 어데 있나?》

《하사관모임에 참가했지. 련대 참모장동지가 와서 소집했으니 중요한 회의인것 같애.》

원진이와 웅범이는 전호가를 나란히 걸으며 다정히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웅범이! 이 계선으로 놈들이 제일 많이 밀려든다지?》

《그래. 하루에 대여섯차례씩은…》

《그래서 난 이 중대에 꼭 보내달라고 졸랐어.》

《잘했어. 우리 중대 방어계선은 말이야. 동부전선에서도 노란자위래. 그래서 우리 장군님의 작전도에 큰 점으로 딱 찍혀 있대!》

《알고 있어! 련대나팔수가 그런건 더 잘 알아.》

《하긴… 소원이 풀렸으니 잘 싸워 보자구!》

두 전사는 뜨겁게 손을 잡았다.

이 시각, 반토굴안에서는 심각한 모임이 벌어 지고 있었다.

빼곡이 모여 앉은 하사관, 군관들을 둘러 보며 련대 참모장이 낮으나 힘 있게 말했다.

《동무네 중대 방어전연에 있는 854.1고지를 뺏는것은 전선동부의 운명을 좌우하는것이요!

놈들은 〈하기공세〉에서 바로 이 고지를 지탱점으로 전선에 파구를 열어 보자고 노리고 있소!》

《…고지를 빼는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작전적방침을 관철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요!》

좌중의 공기는 자못 무거워 졌다.

분대장 신기철도 한구석에 앉아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

련대참모장의 말이 계속되였다.

《중대장동무! 오늘밤 진지를 인계 받을 중대가 오면 동무네는 후방계선에 가서 고지습격전투를 위한 〈모의〉훈련을 본격적으로 해야겠소!》

《알았습니다!》

《이만합시다!》

모임이 끝나자 군관, 하사관들이 반토굴을 나섰다.

《신기철분대장은 좀 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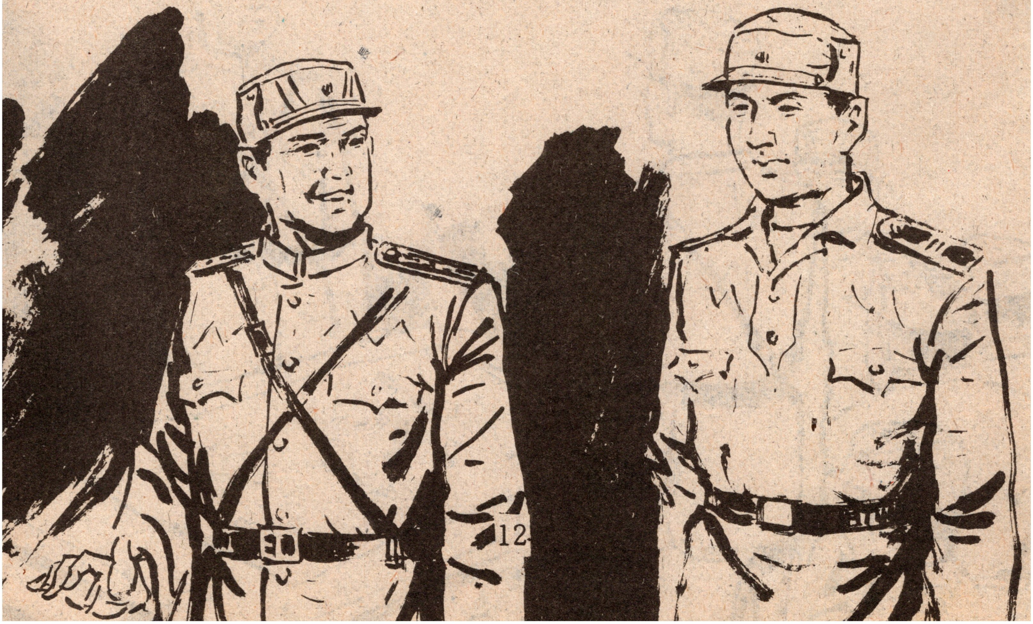
《알았습니다.》

련대참모장은 나이 지숙한 신기철을 미더운 눈길로 한동안 지켜 보았다.

《신동무는 중대 당원들중에서 제일 로당원인것 같은데? …》

《46년 6월에 입당했습니다.》

《그렇소? 나와 당생활 년한이 같구만! 동갑이!》
《동갑이요? 허허허.》
《정치부중대장도 동무의 입당보증을 받은 사람이라지?》
《예. 제 잘 돕지를 못합니다.》
《무슨 소릴… 동문 전쟁 첫날부터 내내 잘 싸웠소! 우리 련대나팔수가 전투구분대에 가겠다구 하두 떼를 쓰기에 동무의 분대에 배치했소.》
《그래요?》
《박원진이라구 똑똑한 동무요.》
《원진이요?》
《박원진일 아오?》
《알아도 잘 압니다. 지난해에 제가 신입병사 훈련을 준 일도 있습니다. 고중출신 민청원이구 구성에서 입대했지요?》
《옳소! 마침이구만! 눈치 빠르구, 배우려는 욕심이 많은 동무야!》
《알고 있습니다.》



련대참모장은 군복주머니에서 편지 한장을 꺼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끼구 있으면서 당원으로 키우자고 했는데 본인이 생떼질하길래 동무한테 보낸거요. 이건 그 친구 어머니가 나한데 보낸 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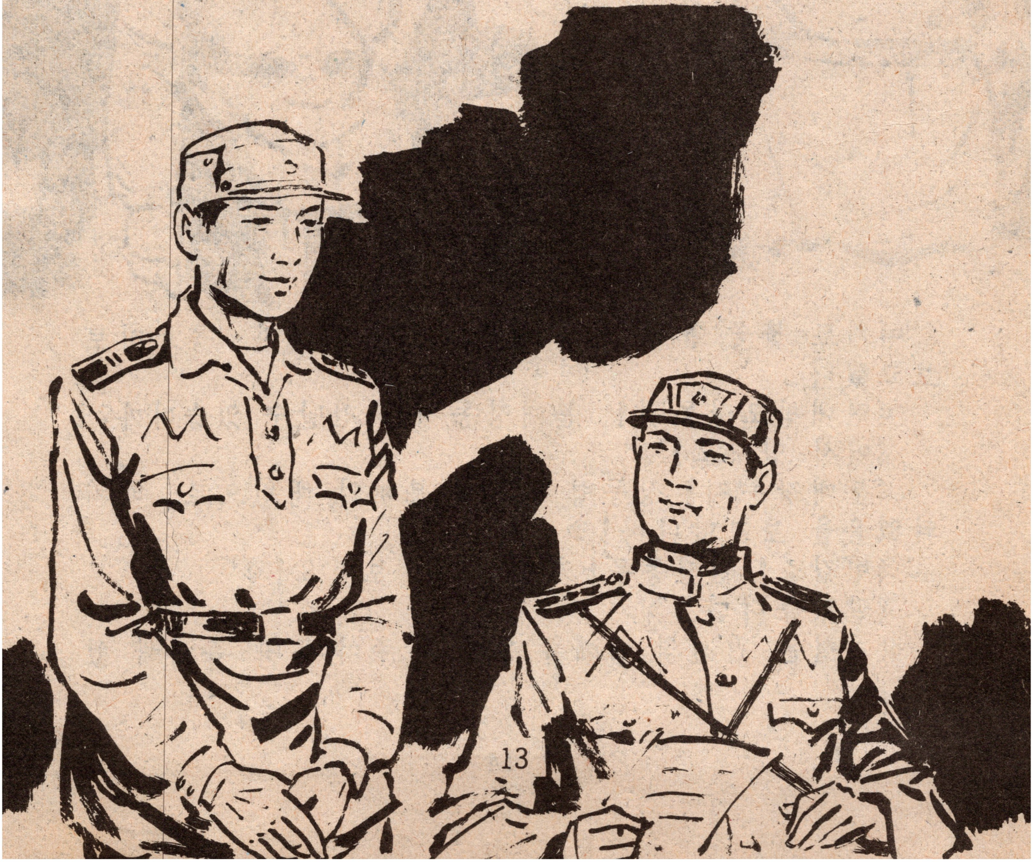
《원진의 어머니가요?》

《그래. 뭐라구 썼는가 들어 보겠소? 〈우리 원진이를 소원대로 전투구분대에 보내 주십시오.

저는 한 당원으로서 당원인 련대참모장동지한테 부탁하는겁니다. 그애가 입대하기전에 저는 당조직앞에서 아들인 민청원을 잘 교양하겠다고 스스로 당적분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웅심 깊은 어머니구만요.》

신기철은 못내 감심했다.



여기로 불쑥 들어 선 박원진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련대참모장동지! 분대장동지를 만날수 있습니까?》

《어서 만나오!》

《분대장동지! 상등병 박원진 분대의 대원으로 배치되였음을 보고합니다!》

《반갑소! 원진동무! 함께 싸워 보기요!》

《알았습니다.》

신기철은 원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못내 흡족해 했다.

련대참모장은 빙그레 웃으며 신기철에게 편지를 넘겨 주었다.

《자 받소! 박원진동무도 인계 받구; 또 〈당적분공〉도 인계 받소! 하하하.》

원진이는 의아한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날밤,
진지를 교대한
중대는 방어전연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와서
새진지를 꾸리기 시작하였다.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밤, 전사들은 장구류를 벗을 사이도 없이 전호파기에 달라 붙었다.

걸싸게 삽질하는 원진에게로 다가 와 웅범이가 말을 건넸다.

《원진이, 사실 련대에서 중대에 온건 〈떨어 진〉 셈인데 후회 안하겠어?》

《아니, 난 소원대로 됐어.》
《좋아, 참 우리 신기철분대장이라면 련대 군관들도 대하는 품이 달라.》
《그래?》
웅범이는 자랑스레 말했다.
《광복직후 첫 당원이구. 락동강까지 갔다 온 전투공로자구.》
《나도 이미 알구 있어.》

《여, 이건 내가 알아 낸 비밀인데…우리 분대장이 글쎄 정치부중대장동지의 입당보증인이래.》

《엉?!》

《이건 사실이야. 군대에선 하급이지만 당에선 선배지! 선배!》

《야! 그랬구만!》

원진이는 희한한 소식에 어리둥절해 졌다.

《웅범동무!》
전호턱에서 신기철이가 소리쳤다.
《옛!》
웅범이가 그앞에 급히 달려 갔다.
신기철은 심중한 어조로 물었다.
《동무! 요전날 련대에 련락 갔다 오면서 제기된게 없소?》
《없습니다!》
《없긴 왜 없소! 틀렸소! 전사는 직속상관에게 빠짐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소? 규정을 모르는가!》
《저…》
《중대장동지한테 가보오!》
《알았습니다.》
웅범이가 급히 달려 갔다.

원진은 불안한 눈길로 신기철에게 물었다.

《분대장동지! 웅범동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련대 병기수리소에서 경기관총을 찾아 오다가 미국놈 쌕쌔기를 한대 떨구었구만.》

《예? 비행기요? 》

《린접부대에서 통보가 온것 같소.》

《대단한데요…》

《원진이! 동무는 남에게 뒤지는걸 영 질색인 성미지?》

《그야 뭐…》

《내 다 알아. 군인선서를 하던 날 웅범의 연설원고를 어물쩍 챈거랑.》

《헤…그건…사실…》

원진의 량볼은 딸기빛으로 붉어 졌다.

원진은 그날의 일을 생각하니 자신도 어이가 없어 졌다.

원진이는 입대후 신기철분대장에게서 신입병사 훈련을 20여일간 받았었다.

군인선서를 하루 앞두고 신입병사들은 목달개를 새로 단다, 바지주름을 칼날같이 세운다,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신기철이 박원진을 조용한곳에 불렀다.

《원진이! 래일 군인선서가 끝난 다음에 신입병사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됐지?》

《예! 대렬참모동지한테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 준비했소?》

《예. 분대장동지! 좀 봐주겠습니까?》

《들어보기요.》

《알았습니다.》

원진은 품속에서 종이 몇장을 꺼내더니 헛기침까지 몇번 하고나서 감정을 돋구어 읽기 시작했다.

《동무들! 평화와 건설의 노래소리 높던 내 나라 강산에 침략의 총포성소리가 가득 찼고 방금 섰던 3층 벽돌집은 길가에 넘어지고 온갖 새 날아와 은방울 굴리던 공원의 푸른 숲도 다 불 탔습니다.

피 끓는 조선청년이라면 어찌 참을수 있습니까!

나는 이 나라의 청년, 민청원입니다.

원쑤들을 복수하는 길에, 조국을 수호하는 길에서 이 피를 아끼겠습니까! 이 살점을 아끼겠습니까!》

목청 높이 읽던 박원진이 신기철을 흘끔 곁눈질해 봤다.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신기철을 불안스레 보며 원진은 물었다.

《시작을…이렇게 하면…어떻습니까?》

《역시 원진이는 고중출신이니 수준이 있구만. 그런데…》

《?…》

《의견이라 할가?…》

《어서 말씀하십시오.》

《거, 뭐라구 할가. 어느 시에서랑, 신문에서랑 보던 소리 갈구…원진이! 내 생각엔 말이요.》

《?…》

신기철은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띠염띠염 말했다.

《거, 동무가 광복전엔 어떻게 살았구, 장군님의 은덕으로 광복후엔 어떻게 살았구… 그러니 미국강도배들이 내 학교, 내 집, 내 행복을 빼고 노예로 짓밟으려고 날뛰는데 이 나라 청년으로서 어찌 이 손에 총을 잡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겠는가…좌우간 자기의 심정 그대로 말했으면 더 좋을것 같구만.》

생각 깊이 듣던 원진이 머리를 끄덕였다.

《원진이, 1소대 한웅범이도 연설한다는데 잘 준비하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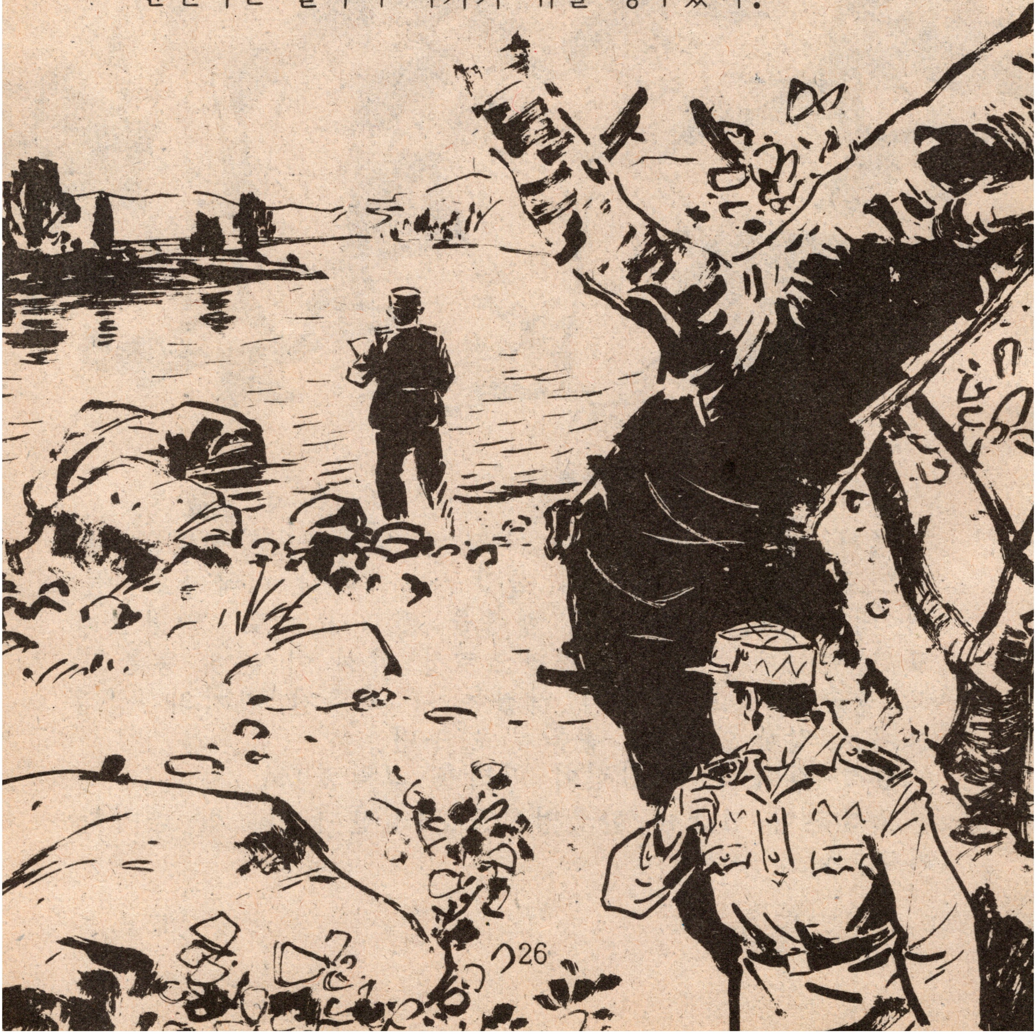
신기철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원진은 강가로 다가가고 있었다.

버들숲에서 누구인가 웅얼거리며 외우는 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살펴 보았다.

웅범이가 《연설》련습을 하고 있었다.

《저는 저의 부모님들이 감자 다섯말을 빚진것때문에 아홉살부터 지주집 꼴머슴을 살았습니다.》

원진이는 살며시 다가가 귀를 강구었다.



웅범이는 원진이가 다가온것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뙤약볕에서 해종일 파리와 등에한테 물어 뜯기워 피투성이가 되여 가면서도 해가 질 때까지 소를 방목했습니다.

저의 잠자리는 외양간 구석이고 이불은 벼짚북데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원진의 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저 친구도 신통히 나와 꼭같이 살아 왔구나.)

《연설》련습을 하던 웅범이가 인기척에 놀라 돌아보았다.

《누구야?》

《아, 아니야.》

원진이가 어줍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다음날, 원진을 비롯한 신입병사들은 련대 군기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했다.

선서가 끝나자 대렬참모가 넌지시 말했다.

《련대장동지! 신입병사동무들의 결의를 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결의라? 그거 좋구만! 어디 들어 보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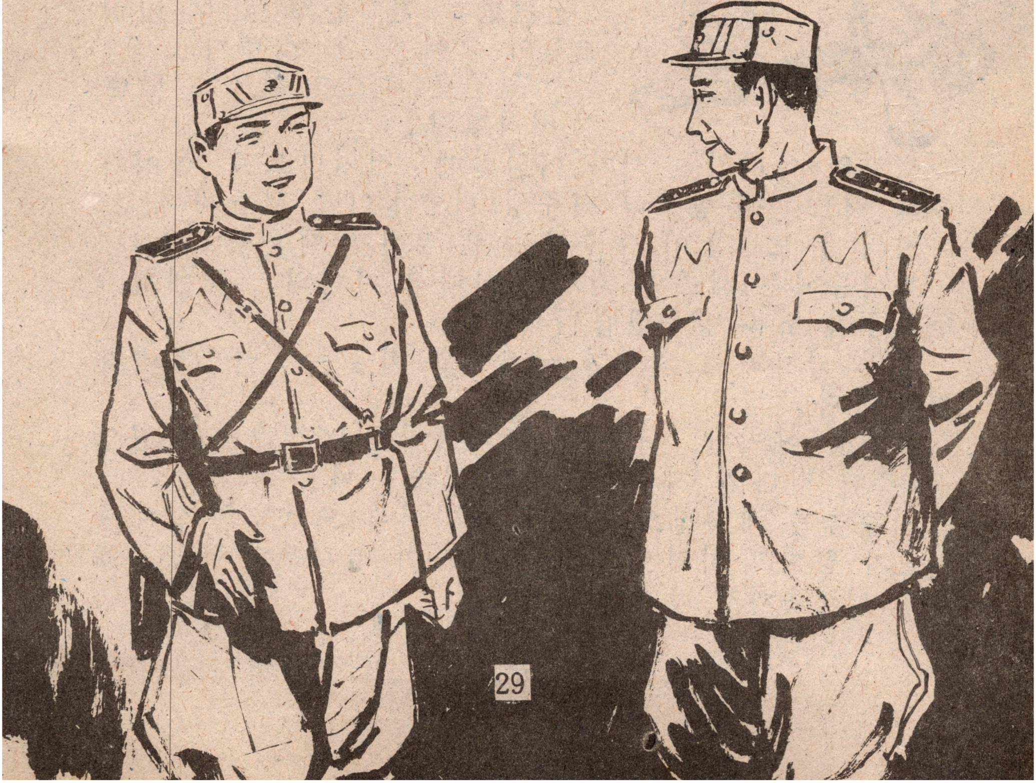
대렬참모는 빙 둘러 보다가 원진이와 웅범에게 눈을 끔쩍여 보였다.

원진이는 자기가 쓴 원고를 다시 들여다 보았다.

(평화와 건설의 노래소리 높던…이거 분대장동지의 말대로 떴거던. 속이 궁글었어. 웅범이가 하는 식으로 해야 해.)

《누가 한마디 하오!》

대렬참모가 원진이쪽을 보며 재촉했다.



원진이는 주밋거리다가 큰 용단을 내린듯 불쑥 일어나 전사들앞에로 나갔다.

신기철과 전사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이 그에게 확 쏠렸다.

원진은 추연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여덟살때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아홉살부터 지주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이 수수쌀 두말 빚진것 때문이였지요.

한여름에는 해종일 뙤약볕 아래서 파리와 등에한테 뜯기우며 소를 방목했습니다.

저의 잠자리는 외양간 구석이고 이불은 벼짚북데기였습니다.

초겨울 어느날, 너무도 배가 고파서 소여물속의 콩알을 주어 먹다가 지주놈에게 들켰습니다.

지주놈은 개화장으로 마구 때리더니 도적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뒤산에 끌고 가 소나무에 꽁꽁 매놓고 넝마옷까지 벗겨 버렸어요.

초겨울날 밤 꽁꽁 언 저를 옹노를 보러 왔던 웬 할아버지가 구원해 주었습니다.

동무들! 소새끼보다 못하게 살던 저는 광복후 아버지 **김일성**장군님의 덕분에 고중학생이 되였습니다.

미국놈을 쳐 이기지 못하면 다시 소새끼보다 못한 머슴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광복을 안아 오시고 우리 행복을 안겨 주신 장군님 은덕에 보답해야 할게 아닙니까!》

누구인가 《흑!》하고 흐느꼈다.
주먹으로 눈굽을 훔치는 전사들도 있었다.
련대장도 신기철이도 감동에 젖은 눈길로 원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모두들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대렬참모가 웅범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또 다른 동무가 하시오!》
《…》
《한웅범동무가 한마디 하시오.》
웅범이가 일어섰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 졌다.
(내가 애써 준비한 내용과 꼭 같은 말을 원진이가 다 했으니…
뭘 말한단 말인가.)

모두들 웅범이를 지켜 보고 있었다.

전사들앞에 나선 웅범은 한동안 이마에 솟는 콩알같은 땀을 씻으며 머밋거렸다.

《저는…저도…사실 박원진동무처럼…아홉살부터 지주집 꼴머슴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 온 경력도 꼭 같구 원진동무와 꼭 같은 결의를 다지구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머리를 푹 숙이는 웅범이를 향해 박수가 울렸다.

원진이는 웅범이의 난처한 정상을 보며 량심에 가책을 느꼈다.

련대장은 대렬참모에게 나직이 물었다.
《저 박원진이란 전사를 어디다 배치했소?》
《3대대 1중대입니다.》
《련대 나팔수로 다시 배치하오. 아주 똑똑해!》
《알았습니다..》

회상에서 깬 원진과 신기철은 빙그레 마주 웃었다.

중대부에 갔던 웅범이가 돌아 오는것을 보자 원진이는 마주 달려 갔다..

《웅범이! 석대행기를 쏴 떨군게 사실이야?》

《철다리를 폭격하는걸 갈겼더니 꽁무니에 불이 확 일며 떨어 지더구만.》

《저런! 그런데 분대장동지한테도 안 말했어?》

《그저 뭐…》

《비행기 한대 떨구면 국기훈장은 타놓은건데…》

《훈장을 딱 타야 하니?》

《무슨 소릴 해! 전쟁판에 나왔을바엔 훈장을 타야지 안그래?》

《원진이! 우리 중대 당원동지들은 그저 전쟁승리에 보탬을 주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싸우더구나.》

《?…》

원진은 그 말에 웅범을 새삼스런 눈길로 보았다.

그날밤 중대는 밤새껏 《적철조망》구간을 극복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철조망 쇠가시에 걸려 째진 배낭이며 군복을 기우며 원진이가 지청구를 했다.

《제길! 여기 오면 속이 후련하게 미국놈들을 쏴 눕힐줄 알았는데 매일 련습이나 하니.

난 어디 가나 잘못 떨어 진 씨앗신세야.》

신기철이 그의 이마의 땀을 씻어 주며 물었다.

《무슨 의견이 있소?》

《전 이러단 끝내 구실을 못하고…전쟁이 끝날것 같습니다.》

《허허…동무가 할 싸움몫은 이제 얼마든지 있소.

원진이! 지금 장군님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에서 밤을 새우고 계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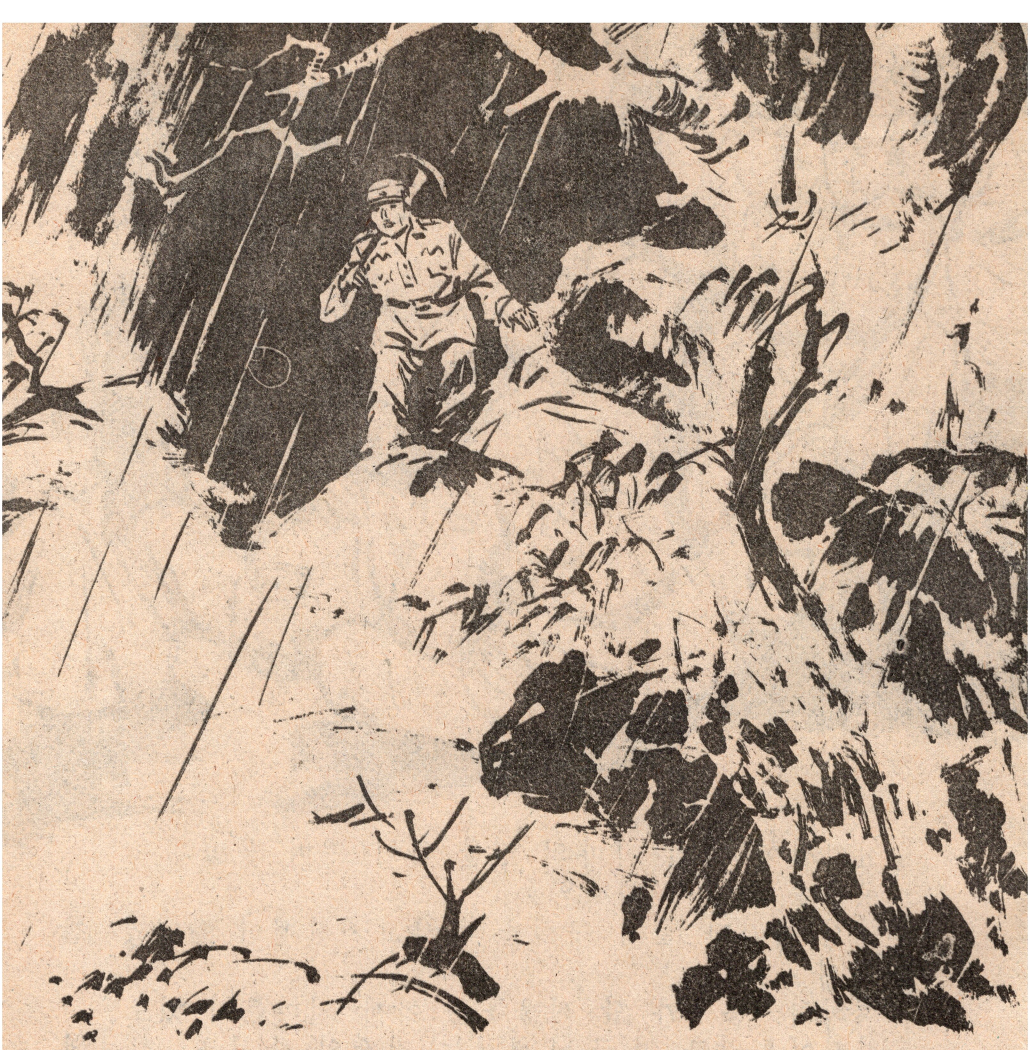
동무나 나나 이 전쟁판에서 한모퉁이씩 맡아 나서야 우리 장군님의 부담을 덜어 드릴게 아니겠소.》

《…》

《동무의 어머니도 당원이라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 분대장이 모르면 되냐.》



신기철은 피로가 쌓인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원진이, 좀 쉬오.》

《분대장동지! 어디로 가십니까?》

《래일은 적 포진지를 까는 훈련을 하는데 포진지를 만들어야지.》

《?…》

신기철은 곡괭이를 들고 스적스적 걸어 갔다.

초가을비가 구질구질 내리기 시작하였다.

훈련에 지친 전사들이 하나둘 신기철을 따라 포진지를 파기 시작했다.

특무장이 다가와 신기철에게 말했다.

《분대장동무! 취사근무를 설 동무를 한명 보내 주오. 취사원아바이는 부상자리가 도져서 후송해야겠소.》

《알겠습니다. 박원진동무! 동무가 중대 아침식사를 보장해야겠소!》

《알았습니다!》

원진이는 삽자루를 넘겨 주고 특무장을 따라 갔다.

원진이가 취사장에 도착하니 밤새 내린 초가을 비에 무져 놓은 삭정이들이 푹 젖어 있었다.

원진이는 매운 연기에 눈물을 찔끔 짜며 푸푸 불었으나 불은 끝내 일지 않았다.

《제길, 안되겠군!》

그는 땀에 젖어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신기철에게 달려 가서 타협조로 말했다.

《분대장동지! 비에 나무가 다 젖어서 도무지 불을 피울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빵으로 아침식사를 에우게 나누어 주면 안될가요?》

《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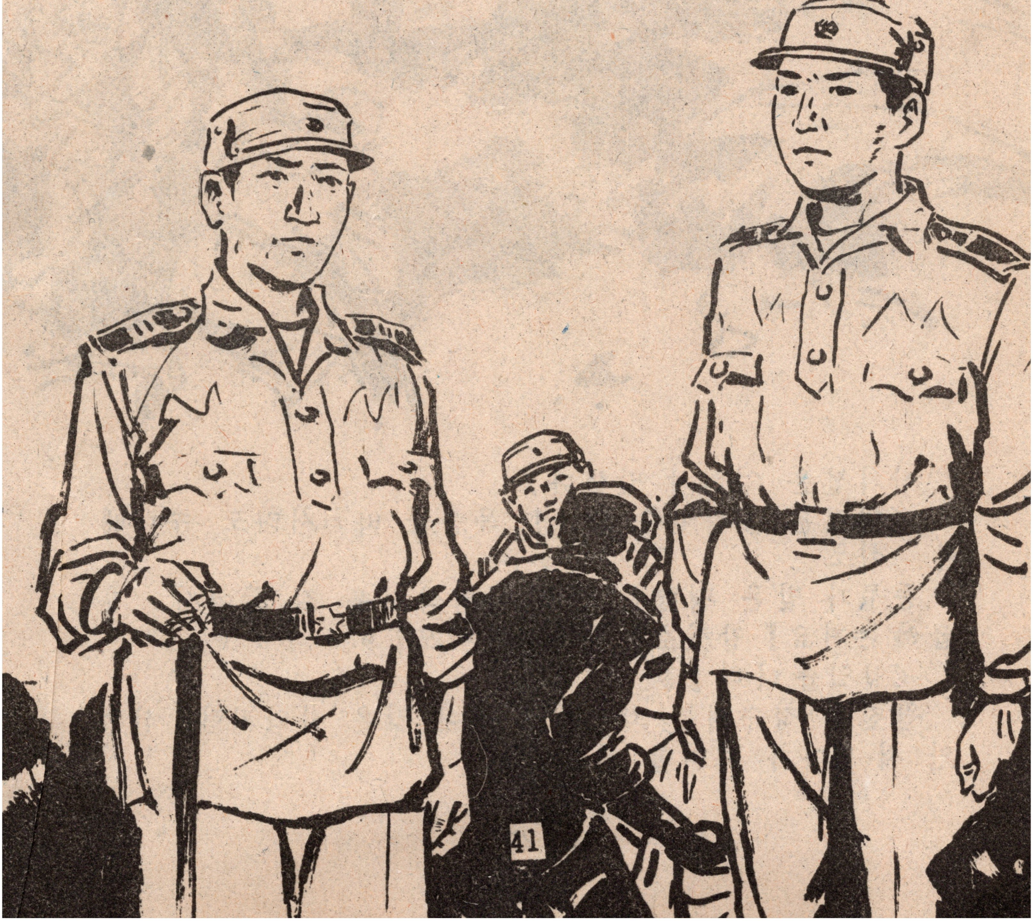
《어쩌겠습니까. 조건이 그런걸…》

《동무!》

신기철은 버럭 성을 냈다.

《?!…》

원진은 와뜰 놀라 차렷자세를 했다.



신기철은 엄하게 말했다.

《명령은 홍정할수 없소! 목숨을 바쳐서라도 수행해야 하오

동무가 받은 명령은 중대 아침식사를 잘 끓여서 공급하는거요! 알겠소! 돌아 가시오!》

《알았습니다!》

원진은 정수리를 쇠망치로 얻어 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서 있다가 자리를 떴다.

《서시오!》

신기철의 날카로운 소리에 박원진은 굳어진듯 멈춰섰다.

등뒤에서는 분대장의 준절한 소리가 들렸다.

《동무! 똑똑히 명심해 듣소! 지휘관의 명령은 크건 작건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거요.

어떤 조건에서든지 전사들에게 더운 국을 먹게 하라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뜻이야!》

《빨리 가서 집행하시오. 날이 다 밝소!》

《알았습니다!》

원진은 자신 없는 걸음으로 취사장으로 향했다.

그의 뒤모습을 지켜 보던 신기철은 어둠속을 더듬으며 골짜기로 내려 갔다.

그는 마사진 적 땅크의 기관뚜껑을 열고 기름통에다 자신의 찢어 진 면내의를 담그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진이는 마른 삭정이를 주으려 해 묵은 가랑잎을 헤치기 시작했다.

한동안 가랑잎을 헤치며 마른 나무가지들을 주어 모으던 원진이는 취사장쪽에서 타 오르는 불길을 보았다.

《아니?!…》

그는 삭정이를 한아름 안고 그리로 급히 달려 갔다.

취사장에서는 신기철이가 젖은 나무에 기계기름에 적신 면내의로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윽고 가마가 끓기 시작했다.

원진은 자책에 잠겼다.

(분대장동지는 저런 생각을 했는데 난…)

신기철이 그를 발견하고 손짓했다.

《원진이! 뭘해! 빨리 쌀을 일어 안쳐야지!》

《분대장동지! 저때문에…》

《자! 중대동무들이 밤새 찬비를 맞으며 훈련도 하고 공사도 했는데 뜨끈한걸 푸짐히 대접하자구! 저런 닭도 여러마리 있구만!》

신기철은 불길이 활활 이는 아궁이를 보더니 작업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전선고지들에 첫 해살이 비쳤다.

《중대 식사 모엿!》

구령소리와 함께 중대 전사들이 취사장으로 모여 왔다.

원진이는 전사들의 식기에 김이 문문 나는 닭고기국을 듬뿍듬뿍 담아 주었다.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소리가 비 오듯 들려 왔다

《야! 푸짐한 닭고기국이구만! 원진이 솜씨가 괜찮아!》

《젖은 나무로 용케 끓였구만!》

《밤새 밸속까지 얼었댔는데 뜨끈한 국을 마시니 배속에서 힘이 뻗치는 소리가 들려!》

《원진취사원 〈오마니〉! 수고했네!》

전우들의 칭찬에 원진은 못내 어색해하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저, 사실은 우리 분대장동지가…》

《원진이!》

신기철은 국통에서 닭의 다리를 한개 건져다 원진의 손에 들려 주었다.

《이거 좋은게 있구만. 먹으라구!》

《이러지 마십시오!》

《어서 받으라구. 닭의 다리는 쉽게 차례지는게 아니야. 장가 갈 때 가시집에서 주는것이 상례야.》

《장가요?》

《그럼!》

흥그러운 기분속에 신기철이 능청스레 물었다.

《원진동문 입대전에 닭을 길러 봤나?》

《농촌마을에 살면서 닭을 길러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닭이 밤에 잘 때 요 한다리를 왜 들구 자는지 아나?》

《글쎄요:…아마 발이 시리니까 교대로 덥히느라 그러겠지요.》

《발이 시려? 여름에도?》

《아마, 족제비 같은 맹수들의 침략을 막자구 경각성을 높이는거겠지요.》

《침략? 경각성?》

《하하하…》

전사들이 와그르 웃었다.

원진이도 따라 웃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대장이 자기의 마음을 눅쳐 주려고 우정 그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찌르르해 졌다.

그날밤, 중대군인들은 반토굴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누구인가 옆에 누운 전사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원진이는 살며시 눈을 떴다.

신기철이가 몇몇 대원들을 조용히 깨우고 있었다.

《당원동무들은 좀 나오시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중대 당원들이 조용히 반토굴 밖으로 나갔다.

호기심이 동한 원진이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은폐호에서 신기철의 절절한 말소리가 또렷이 들려나왔다.

《방금 중대장동지도 말했지만 우리에겐 변변한 삽 한자루 없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차지한 854.1고지의 방어축성물과 꼭 같은 시설을 이틀내에 다 만들고 본격적인 공격훈련을 해야 합니다.》

은폐호에 모인 당원들의 얼굴들에는 심각한 빛이 어려 있었다.

신기철은 그들을 둘러 보며 뜨거운 어조로 말했다.

《광복직후에 우리한데 곡괭이 한개, 망치 한개 변변한게 있었습니까?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공장도 세우고 철도도 건설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것은 우리 로동당원들의 혁명적인 일본새가 돼야 합니다.

나는 불발탄을 해체해서 폭약을 얻어서래도 이틀내에 공사과제를 무조건 끝내자는겁니다.》

《옳소!》

《신기철동무의 말이 옳소!》
당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응했다.
그 모습을 어둠속에서 지켜 보던 박원진은 원망어린 눈길로 중대 당원들을 새삼스레 보았다.
신기철분대장도 다른 당원들도 누구나 평범한 전사들이였다.
하지만 저들은 어찌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본새에서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단 말인가…
원진의 생각은 깊어 졌다.

원진이는 다시 잠자리에 들어와 누웠다.
이 생각 저 생각 굴리다가 솔곳이 잠 들었다.
얼마나 잤을가…누구인가 다급히 소리 쳤다.
《일어들 나라구!》
《기상시간전인데 누구야? 여긴 전투장도 아닌데…》
《중대 당원들이 불발탄을 해체해 오고 있소!》
《뭐라구?!》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난 원진이는 총알같이 달려 나갔다.
새벽노을이 비낀 언덕받이로 불발탄을 안고 천천히 내려 오는 신기철의 불굴의 모습이 안겨 왔다.
《분대장동지!》
격정에 목 메인 원진이가 달려 갔다.

《오지 말라! 원진이! 위험해!》

《분대장동지!》

마구 달려 가려는 원진이의 팔소매를 누구인가 잡아 당겼다.

《원진이. 》

《? …》

돌아 보니 정치부중대장이였다.

《이걸 놓으십시오!》

《원진이,위험하다구 하지 않소!》

《분대장동지는 목숨을 내대고 불발탄을 해체하는데… 이걸 놓으십시오. 》

《됐소!》

정치부중대장은 그의 팔소매를 끌고 웅뎅이가 진픗으로 갔다.

원진이는 뜨거운 어조로 물었다.

《정치부중대장동지! 당원동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동무나 꼭 같이 수수한 사람들이구 평범한 전사지. 원진이! 동무도 당원이 돼야지?》

《저 같은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나? 피 끓는 민청원인데 목표를 높이 걸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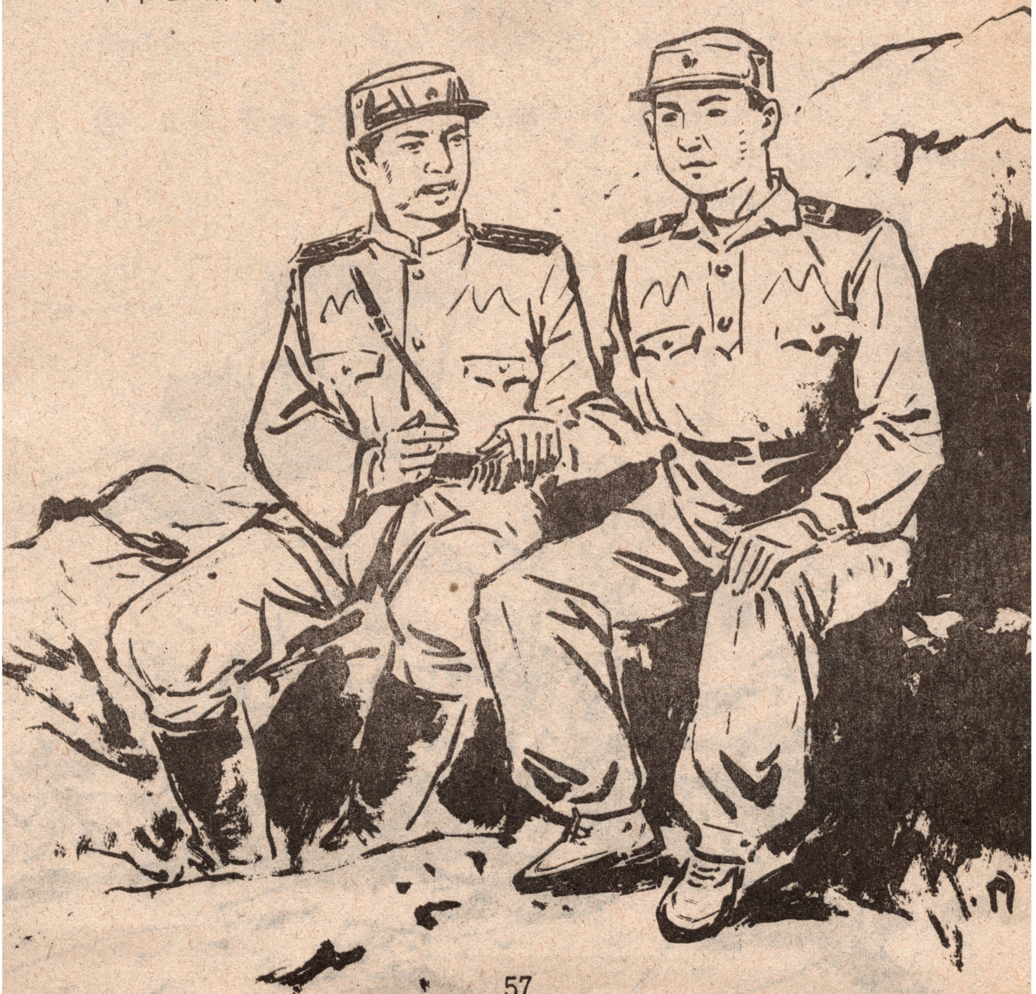
《난 언제인가 신기철동무의 일기장을 본 일이 있는데 입당한 날 이렇게 쓴 구절이 있더구만.

〈돈으로는 살수 없고 힘으로는 못구하고 애원과 간청으로 얻지 못하는 신성하고 고귀한 당원의 증표를 내 오늘 받아 안았다.

붉은 당원증을 이 심장에 품은 내 삶의 길, 당을 따라 걷는 이 길에 량심을 팔아 얻는 값 눅은 인생이라던가, 지조를 던지고 기여 드는 그 어떤 보금자리도 없으리라.

내 이 몸이 우리 당의 품에서 그의 살붙이로, 불붙는 넋으로, 불길로 살리라〉라고 썼더구만.》

정치부중대장의 말을 들으며 박원진은 불발탄을 해체하는 신기철과 중대당원들의 모습을 뜨거운 눈길로 지켜 보았다.



854.1고지에 설치된 적의 방어시설과 류사하게 진지를 꾸린 중대는 다음날 새벽부터 《공격》훈련을 본격적으로 했다.

해종일 훈련한 전사들의 온 몸은 땀으로 젖었다.

《훈련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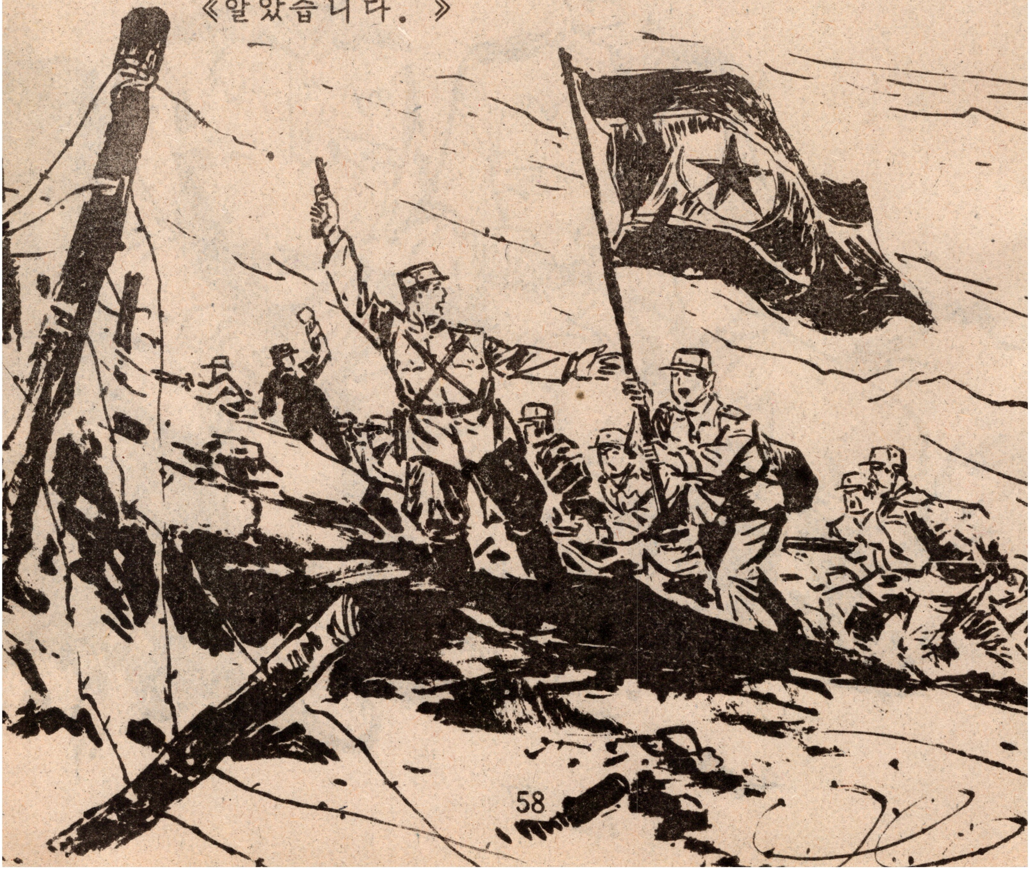
구령이 떨어지자 전사들은 모두 풀밭에 풀썩풀썩 주저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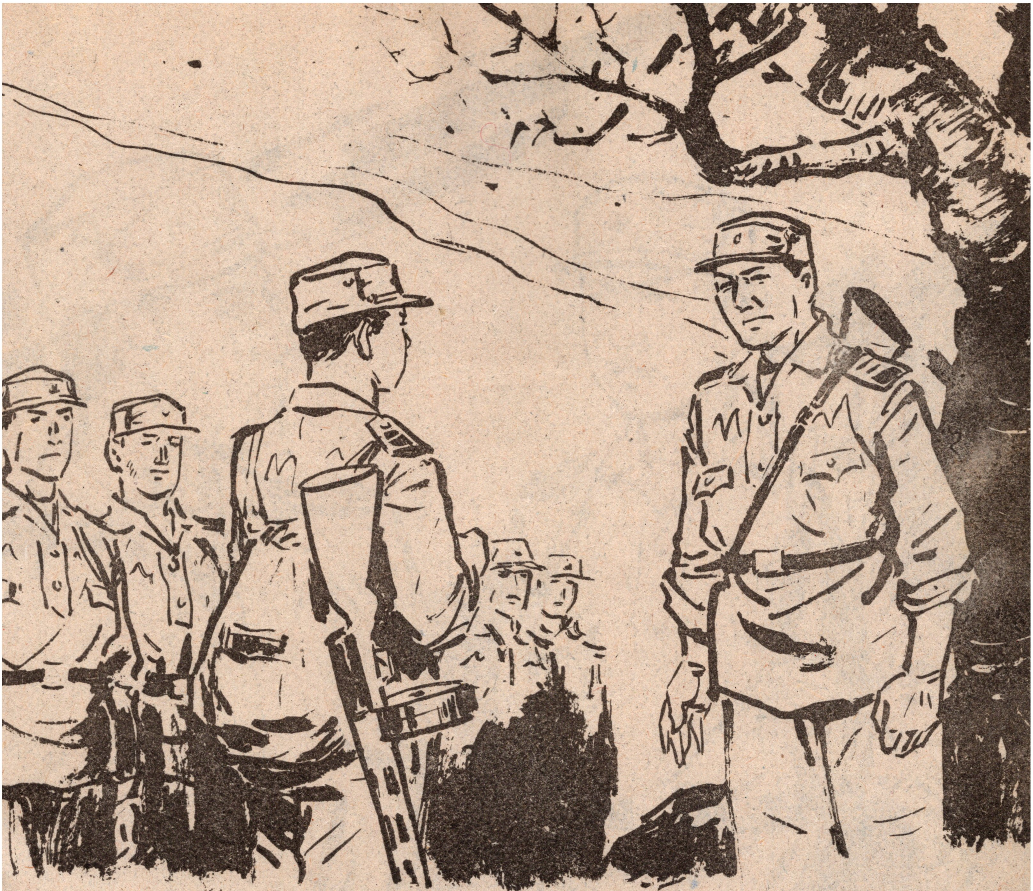
분대총화에서 신기철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공격훈련에서는 박원진동무가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원진동무의 속도를 기준해서 적의 참호들을 타고 앉아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대 해쳣!》

신기철의 구령이 떨어지자 박원진이 대렬앞에 한발자국 나섰다.

《분대장동지!》

《왜 그러오!》

《전 량심을 속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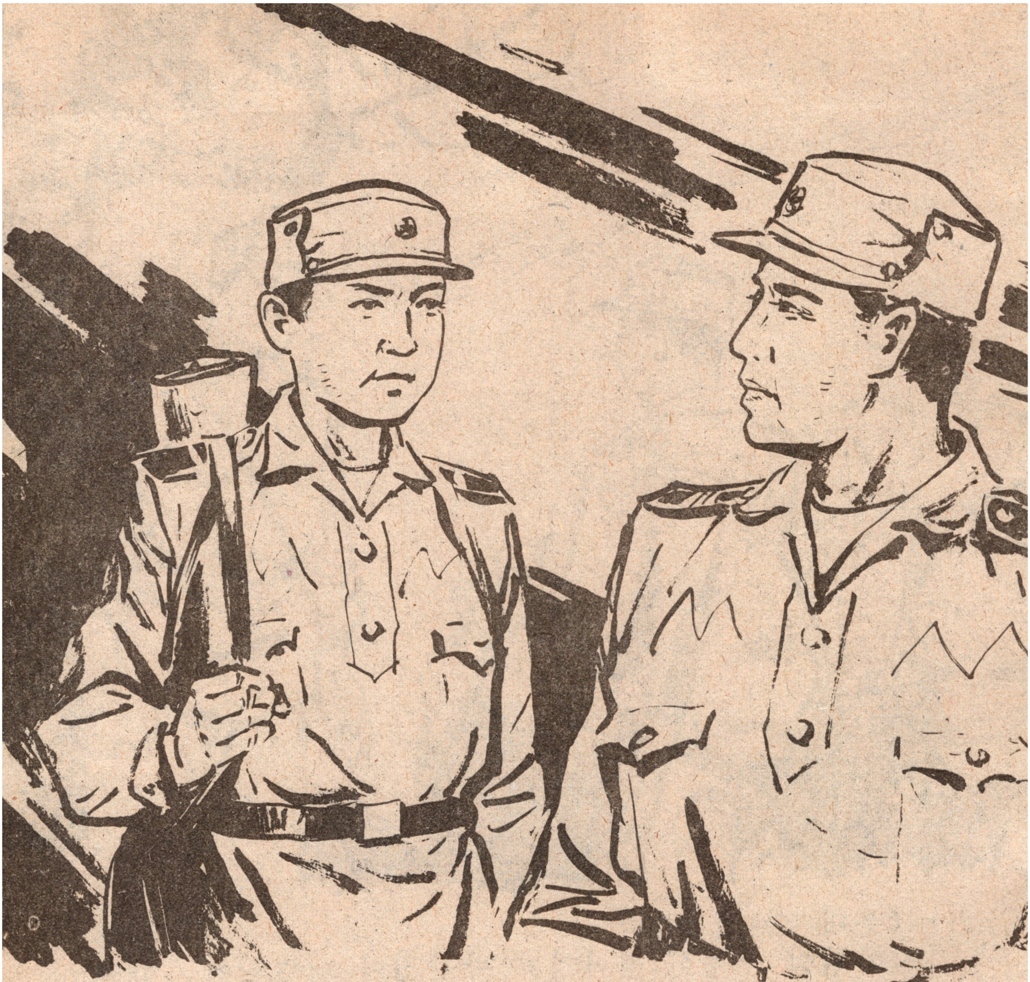
《뭐요!》

《전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신기철도 전사들도 의아한 눈길로 원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사연인지 말해 보오!》



《분대장동지! 제가 적 〈참호〉를 누구보다 빨리 돌파한것은 〈덩굴철조망〉을 넘지 못해 에돌았기때문입니다.》

《? …》

《실지 전투였다면 지뢰발을 밟고 참호로 가닿기전에 락오자가 되였을것입니다.》

《…》

《분대장동지, 다시 구령을 주십시오. 방금 분대장동지가 평가한 기준시간을 돌파할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그윽한 눈길로 원진을 지켜 보던 신기철은 구령을 쳤다.

《박원진동무! 적 〈참호〉를 향해 앞으로!》

《알았습니다!》

원진은 기관단총을 비껴 들고 비호 같이 달려 나갔다.

…

그 모습을 지켜 보는 전사들은 생각이 깊어 졌다.

그날 저녁은 원진이가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웅범이가 입당심의를 받으려 련대에 올라 간다는것이였다.

원진은 어둠속으로 멀어져 가는 웅범이를 바래주며 오래도록 망두석같이 서 있었다.

신기철이 다가 와 어깨를 툭 쳤다.

《원진이! 기분이 처진게 아니요?》

《분대장동지, 제가 웅범동무한테까지 뒤질줄은 몰랐습니다.

한날 한시에 입대했구, 학력도 나보다 낮은…》

《도토리 키대보기란거요?》

《사실은…》

《원진이!》

신기철은 파고 드는듯한 눈길로 원진을 바라보더니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사람에게서 제일 나쁜건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깔보는 값싼 자존심이야!》

《…》

《웅범동무는 뛰여난 위훈을 세운건 없소. 그저 수수한 병사로 싸웠지.

전투와 전투로 이어지는 속에서도 군사규정과 규범의 요구를 한치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누가 보건 말건 전쟁승리에 보탬을 주려고 진심으로 애쓰고 있지.

정말 보석같은것이 그 가슴에 차 있지.》

《당에서는 그걸 귀중히 여긴단 말이요.》

《…》

신기철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장을 꺼냈다.

《련대참모장동지가 주고 간거요. 동무의 어머니가 쓴 편지야.》

《우리 어머니가요?》

《그래, 여기에 뭐라구 썼는지 들어 보겠소?》

신기철이 편지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련대참모장동지! 우리 아들이 그저 덜지도 보태지도 말고 부대의 당원동지들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에 나간 우리 원진이가 큰 훈장을 탔다는 소식을 듣는것도 기쁘겠지만 화선입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것이 제일 큰 소원입니다.》

《…》

편지의 구절구절을 새겨 듣는 원진은 가슴속 깊이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 올랐다.

아, 소박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과연 이런 웅심깊은 마음을 지니고 산 사람이였단 말인가…

원진의 눈앞에는 전쟁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 올랐다.

원진의 어머니는 체신소의 통신원이였다.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역전에 나가 신문을 받아왔고 마을과 집집에 신문들을 다 나누어 주고야 돌아왔다.

그 통에 원진이는 아침밥도 못먹고 점심도 못싼채 학교로 가는 날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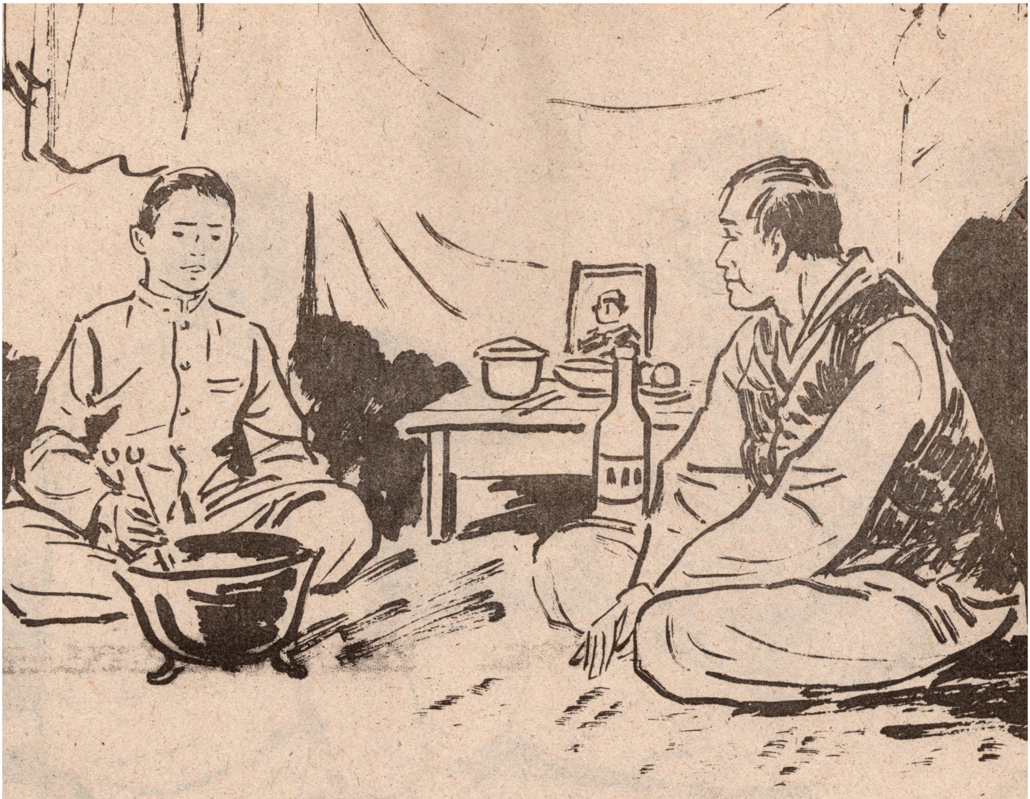
그러는 어머니에 대하여 원진의 불만은 나날이 커갔다.

눈보라 치는 어느날 밤, 아버지의 제사날이여서 가까운 친척들도 이웃들도 찾아 왔다.

벽시계가 열두점을 치도록 어머니가 돌아 오지 않아 친척들과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 갔다.

밤 늦도록 제상앞에 앉아 기다려 준것은 체신소 당위원장아바이였다.

《원진아, 너의 어머니가 그 험한 돌고개를 넘어 오다가 짐승이라도 만난게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면 눈사태에 묻힌게 아닌지…》



《오늘 당보에는 나무 한대를 찍으면 열대를 심어야 한다는 사설이 실렸다. 그걸 빨리 알려 주자구 글쎄…》

《…》

원진은 참았던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 어머닌 너무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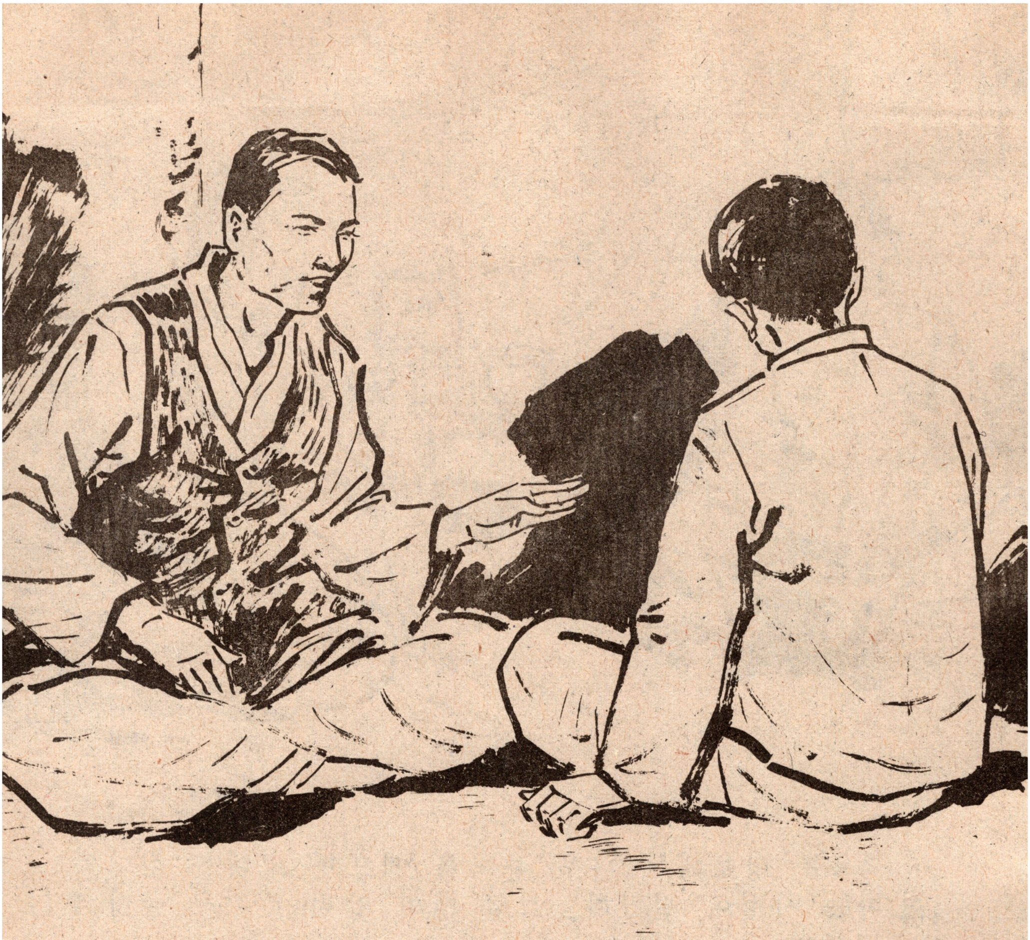
《? …》

《자식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반 동무들이 너의 어머니가 이붓어머니 아닌가구 물어 보겠어요?》

당위원장아바이는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이 녀석이 어머니한테 의견이 많구나.

너도 이젠 고중학생이 되였는데 어머닐 리해해야지. 너의 어머닌 당원이 아니냐.》



《당원들은 제집에 관심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겠지요!》

《없지, …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 제 집 살림을 두고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두 없는게구…》

《…》

《원진아, 너두 알지! 광복전 우리 사는 읍거리엔 왜놈의 양옥집이 몇채 있었구, 직물공장이 한채 있었지. 그런데 광복후 5년간에 벽돌집이 꽉 들어 차고 기계공장이랑 얼마나 많이 일떠섰니?

그게 다 우리 당원들이 밤낮없이 일을 해서 세운거다.

사람들을 불러일으켜 맨 손으로 일떠세웠지. 정말 불같이들 일했어. 그 사람들이 제 집일을 다 돌보면서 그런 큰 일을 할수가 있었겠니!》

《…》

《당원인 너의 어머니는 자기가 맡은 천여세대의 집집이 출근전에 당의 뜻이 담긴 신문을 다 읽고 하루일을 시작하게 하자고 남다 자는 새벽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여 다닌다.…

참 훌륭한 당원이야.》

원진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훌륭한 당원이요? 우리 어머닌 연설도 할줄 모르고 성인학교밖에 다닌게 없어 리론수준도 없는데요!》

《원진이, 우리 당에는 백번천번 연설을 잘하고 만세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도 제 맡은 일을 당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

그 말을 들으며 원진은 생각이 깊어 졌다.

그런 일들을 돌이켜 보는 원진에게는 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사는것이 당원으로 자라는 길인가 하는것이 심장깊이 또렷하게 안겨 오는것 같았다.

다음날에도 중대는 고지 《공격》 훈련을 맹렬하게 진행하였다.

전사들의 목구멍에서는 겨불냄새가 났다.

하지만 원진이는 휴식의 짬시간이면 칡넝쿨을 한아름씩 걷어 왔다. 고지로 돌격할 때 신발에 감아 미끄러지는것을 막자는것이였다.

신기철은 그의 기발한 생각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비가 온뒤 가파로운 고지는 어디나 미끄러운것이다. 구대원인 신기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이였다.

근 보름간이나 간고한 《모의》훈련을 한 중대에는 전투임무가 하달되였다. 중대장은 신기철이네 분대를 참호에 불렀다.

정렬한 분대원들을 미더운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던 중대장은 근엄한 어조로 말했다.

《동무들! 결전의 시각은 다가왔습니다. 지금 중대에 보급되는 탄알과 수류탄이 강건너에 와 있소. 동무네가 오늘밤중으로 그걸 건네와야겠소.》

《알았습니다!》

《출발하시오!》

신기철을 따라 분대원들은 어둠속으로 달렸다. 강을 건너가 탄약상자들을 인계 받은 분대원들은 곧 돌아섰다. 이때 누구인가 다급히 소리쳤다.

《분대장동지! 적입니다!》

《뭐요?!》

신기철의 눈에는 수풀속으로 은밀히 조여 드는 적들의 철갑모가 달빛에 얼른거렸다.

《락하산으로 내린 〈특공대〉놈들이요.》

《? …》

긴장한 눈길들이 신기철을 지켜 보았다.

원진이가 격발기를 제끼며 당돌하게 말했다.

《해치웁시다. 쏘랍니까?!》

《가만!》

《…》

《놈들은 한개 소대가 넘소.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놈들을 제낄수는 있어도…》

《빠지기는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이 탄약은 무조건 중대에 가 닿아야 하오.분대가 엄호할테니 누가 련락을 가겠소?》

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분대장동지가 가야 합니다.》

《…》

그것은 이미 모두들 결사전에서 목숨을 내댈 각오들을 한 웨침이였다.

신기철이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난 마지막까지 지휘해야 하오.》
《…》
《정협이! 동무가 가오!》
《싫습니다!》
《리남철이!》
《전 속도가 떠서…》
《리철진동무!》
《발에…종처가 도져서…곤난합니다. 다른 동무를…》
《자각적으로 나설 동무들은 없단 말이지…할수 없어. 명령을 내릴수밖에…》

자못 팽팽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원진이가 불쑥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원진이는 귀염성스레 웃어 보였다.
《제가 분대의 막냉이니…제가 살아야지요. …명령을 주십시오!》
《좋소! 원진동무! 가시오!》
《알았습니다.》
원진은 기관단총의 탄창을 바꾸어 끼우더니 군복 웃섶을 제끼고 수류탄을 마구 쑤셔 넣었다.
《분대장동지! 일체 사격으로 엄호해 주십시오!》
《알겠소.》

원진은 총알같이 숲속으로 달려 갔다.

《분대 일제 쏴!》

신기철의 구령이 떨어지자 불줄기가 적들이 매복한 풀숲으로 비 오듯 날아 갔다.

불의의 타격을 받은 적들이 대응사격을 하며 몰겨 들었다. 적들의 매복진을 벗어 난 원진은 놈들의 등뒤에 대고 기관단총을 휘둘렀다.

《제1분대는 좌측 릉선을 제압하라! 제2분대는 우측 릉선의 적을 소멸하라! 사격!》

기관단총을 휘두르며 수류탄을 연방 던지는 원진에게로 적들이 확 밀려들기 시작했다.

신기철과 분대원들은 그제서야 원진의 수에 속았다는것을 알았다. 결국 분대를 무사히 뽑자고 혼자서 적을 유인해 나선것이다.

분대원들은 적들이 원진에게로 몰려 간 틈을 타서 탄약상자들을 지고 무사히 빠졌다.

탄약과 수류탄들은 곧 중대군인들에게 공급되였다. 드디여 전투에 진입하게 된 중대 군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참호의 여기저기서는 전사들이 출발준비를 서두르느라 벅작 떠들고 있었다.

분대 전사들의 장구류를 하나하나 살펴 보던 신기철은 원진이가 로송밑에 앉아 달빛에 비쳐 가며 무엇인가 쓰고 있는것을 보았다.

신기철은 호기심이 동해 그에게로 다가갔다.

《원진이! 뭘 쓰나!》

와뜰 놀라 일어 선 원진은 수첩을 등뒤에 얼른 감추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면 좀 보자구.》

《안됩니다.》

《보자는데!》

《챠, 이거…》

원진은 몹시 어색해하며 수첩을 그앞에 내밀었다.

수첩을 펴 보던 신기철은 놀라운 눈길로 원진을 다시 보았다.

《입당청원서》라는 글발이 안겨 왔던것이다. 그 아래에 또박또박 쓴 글자들이 달빛에 우렷이 드러났다.

《…제가 살아 온 인생길에 뼈속 깊이 체험한것은 아버지장군님께서 키워주신 로동당원들을 따르고 그들을 닮으면 참된 인간으로 살수 있다는 그것이였습니다…》

난색한 표정으로 서 있던 원진은 자책 어린 어조로 말했다.

《전,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중대 당원동지들처럼 살자면 멀고도 멀었지요. 감히 입당청원서를 썼다는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아니! 동무는 훌륭한 당원으로 될수 있소!》

《예?!》

《난 믿소. 잘 건사하오!》

《?…》

신기철은 무뚝뚝한 어조로 말하고 자리를 떴다.

원진은 분대장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가늠할수 없어 한동안 굳어진듯 서 있었다.

이때 《중대모엿! 행군준비!》 하는 맵짠 구령이 들려 왔다. 원진은 달려 가 총이며 배낭을 메고 대오에 들어 섰다.

정치부중대장이 대오앞에 나서더니 엄숙히 말했다.

《동무들! 방금 진행된 당세포총회 결정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대군인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첫째로, 매개 전투원들은 자기가 맡은 공격구간을 무조건 돌파할것이다. 둘째로, 공격전투에서 동지 호상간 서로 돕는다. 셋째로, 명령받은 시간에 고지를 무조건 빼아냄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것이다.》

박원진은 격정을 금치 못하며 대오앞으로 달려 나갔다.

《저는 학창시절에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답게 살겠다는 결의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불타는 전선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로동당은 우리의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우리 삶의 전부이신 장군님은 곧 우리 당입니다. 저는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답게 싸울것을 맹세합니다.》

중대전사들은 원진을 향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신기철은 정치부중대장에게 나직이 귀띔했다.
《저 원진동무가 입당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소? 나이는 어려도 속이 깊은것 같소.》
《앞으로 저 동무의 입당보증을 제가 서겠습니다.》
《알겠소. 잘 키웁시다.》

《출발!》

중대장의 구령이 내리자 전사들은 구보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시간 남짓한 사이에 30리를 강행군하여 854.1고지 밑의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였다. 독사처럼 웅크린 적들의 진지들을 노려 보며 전사들은 명령을 기다렸다.

한초, 한초, 숨막히는 긴장한 순간이 흘러 갔다.

그날따라 고지우에는 새벽별이 유난히 반짝였다.

중대장의 손목시계의 시침은 새벽 4시를 가리켰다.밤하늘을 가르며 세발의 적동색신호탄이 포물선을 그으며 솟아 올랐다.

순간 뢰성치듯 아군의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854.1고지는 삽시간에 불바다에 잠겼다.

《돌격 앞으로!》
《만세!》
신기철과 박원진…중대전사들은 서리발 총창을 비껴 들고 고지로 치달아 올라 갔다.
적탄이 빗살처럼 뿌려졌다. 전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 가며 공화국기발이 대오의 앞장에서 달려 나갔다.

여기저기 고지릉선들에 숨어 있던 적화점들이 미친 듯이 불을 뿜었다. 돌격이 좌절되였다.

적탄알이 누비듯이 쏟아 져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단 한초도 지체할수 없는 정황속에서 전사들의 가슴은 바질바질 탔다.

신기철과 분대원들이 수류탄을 연방 던졌으나 쇠그물을 씌운 화점만은 쉴새없이 불을 토했다. 이제는 수류탄마저도 떨어졌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준엄한 시각이 왔다. 불을 토하는 적화점을 노려 보는 신기철의 얼굴에는 비상한 결심이 어렸다.

그의 옆에 엎드린 박원진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분대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불을 토하는 적화점을 증오에 찬 눈길로 쏘아 보던 신기철은 벌떡 일어 섰다. 그는 전우들을 향하여 불 같은 소리로 웨쳤다.

《로동당원들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돌격앞으로!》

신기철은 비호 같이 달려 가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았다.

《쾅!》

화점에서 불기둥이 솟구쳤다.

《만세!》

돌격선이 산악같이 일어 섰다.

《분대장동지!》원진이는 비분에 가슴을 치며 고지로 달려 올라 갔다. 전사들은 순식간에 적들의 1선 참호를 타고 넘어 고지 정점을 향해 달려 갔다.

다음순간 돌격선은 또다시 적화점앞에서 좌절되였다.
적화점앞에 엎드린 원진의 귀전에는 《 로동당원들 … 돌격앞으로!》라고 하던 신기철의 심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왔다. 원진의 코앞에 도사린 가증스런 적화점은 쉴새없이 불을 토하고 날은 활짝 개였다.
적화점을 노려 보는 원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설사 로동당원의 고귀한 그 이름을 지니지 못한다해도 로동당원인 분대장동지처럼 참되게 살리라.)

원진은 땅을 차고 일어 섰다.

그는 전우들을 돌아 보며 고지가 쩌엉- 울리게 소리쳤다.

《민청원들이여! 당원들의 뒤를 따라 앞으로!》

원진은 쏜살 같이 달려 가 가슴으로 원쑤의 불아가리를 틀어 막았다.

《쾅!》
화점이 폭발했다. 돌격로가 열렸다.
《만세!》
전사들은 순식간에 고지정점을 타고 앉았다.
아침해살이 비쳤다.
고지우에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이 휘날렸다.

《만세!》

아침노을속에 승리의 메아리가 조국의 산발마다 높이 메아리쳐 갔다.

로동당원 신기철과 민청원 박원진이 하나의 모습이 되여 육탄으로 열어간 돌격로우에 승리의 메아리는 오래도록 울렸다.

…
못 잊을 전사에 대한 회상에 잠겼던 정치부중대장은 눈굽을 찍으며 젖어 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원 신기철동지는 박원진동무의 입당보증을 설 것을 이미 제기해 왔댔습니다.》

《…》

《민청원 박원진동무를 조선로동당원으로 입당시키는데 찬성하는 세포당원동지들은 손을 드십시오.》

당원들의 손이 일제히 올랐다.

정치부중대장은 그 손길들을 뜨거운 눈길로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가렬처절한 전화의 그날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갔다.

공화국영웅 신기철과 공화국영웅 박원진의 동상앞으로는 새 세대 청년들과 소년단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그들은 영웅들의 동상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육탄영웅으로 될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있다.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그날의 영웅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쳐 울리고 있다.

《로동당원들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돌격앞으로!》

《민청원들이여! 당원들의 뒤를 따라 앞으로!》

로동당원과 민청원!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고 우리 조국을 지켜 낸 성스러운 싸움길우에 하나의 모습으로 빛나는 불굴의 그 모습들은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수천수만의 육탄영웅의 모습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의 심장에 새겨 져 있을것이다.

그림책 육탄영웅

글 문 관 그림, 장정 최주섭
편집 김혜선 교 정 안은숙

냄곳 금성청년종합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2
인쇄 주체90 (2001)년 2월 5일
발행 주체90 (2001)년 2월 10일

ㄱ- 06444